

보도자료



보도일시	2013. 9. 10(화) 제한없음		
배포일	2013. 9. 10(화)	홍보담당	기획처 홍보팀 (880-5054, 9072)
담당부서	농업생명과학대학 학슬림/수목원	문의	학슬림(880-4526)

제 목: UN 생물다양성협약 디아스 사무총장, 서울대학교 특강

- UN 생물다양성협약(CBD,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) 브라울리오 페레이라 데 소우자 디아스(Braulio Ferreria de Souza Dias, 60, 브라질) 사무총장이 2013년 9월 10일(화)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에서 ‘제12차 생물다양성 협약 당사국총회의 주요 이슈와 기대성과’라는 주제로 특강을 가졌다.
- 디아스 사무총장은 생물다양성협약은 “다양한 생물 종들이 본연의 서식지에서 보존됨으로써 지구환경을 지키기 위한 것인데, 생물다양성협약은 궁극적으로 각국의 경제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”이라고 설명하고, 자연환경 보존 노력과 종 다양성에 대한 세계 어린이 및 청소년 대상 교육 등 종 다양성 확보를 위한 CBD의 활동들을 소개하였다.
- 이어 디아스 사무총장은 “CBD 활동 중 하나가 훼손된 자연을 회복하는 것인데 한국은 전후 자연회복에 성공한 훌륭한 사례”라며 “2014년 평창에서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가 열린 후 2년간 한국이 의장을 맡게 되고, 생물다양성 분야의 세계적 리더로 활동할 것”이라고 전망했다.
- 디아스 사무총장은 생물다양성과학과 정책분야 전문가로 생물과학국제연맹 부

이사장, 브라질 환경부 차관 등을 지냈고, 2014년 10월 평창에서 열리는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방한하였다.

□ 생물다양성협약은 1992년 리우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정상회의(UNCED)에서 생물 종 감소의 가속화로 종 다양성 보전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채택되었다. 193개국이 가입되어 있으며, 우리나라는 1994년 154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.